



조코비치

세계 114위 카라체프 '돌풍' 1위 조코비치와 준결승 격돌

카라체프(세계 랭킹 114위)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카라체프가 세계 랭킹 1위이자 '호주오픈의 사나이' 조코비치를 상대로 호주 오픈 4강전을 치른다. 그는 사상 최초의 예선 통과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그는 최근 그리코르 디미트로프(21위·불가리아)에 역시 3-1(2-6 6-4 6-1 6-2) 역전승했다.

이로써 카라체프는 2000년 워블던 블라디미르 볼치코프(벨라루스) 이후 21년 만에 예선을 거쳐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선수가 됐다.

호주오픈만 따지면 1977년 밥 길티넨(호주) 이후 44년 만에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한 예선 통과 선수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자신의 메이저 대회 본선 데뷔 무대에서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첫 번째 선수이기도 하다.

또 2001년 워블던에서 당시 125위로 우승까지 차지한 고란 이바니세비치(크로아티아) 이후 가장 낮은 세계 랭킹으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2021 호주오픈테니스

카라체프, 디미트로프에 역전승 예선 통과 선수로 4강 기적 일궈

오른 사례가 됐다.

카라체프의 맞상대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로 정해졌다.

조코비치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에게 3-1(6-7(6-8) 6-2 6-4 7-6(8-6)) 역전승을 거뒀다.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 예선을 거쳐 4강까지 진출한 아슬란 카라체프(114위·러시아)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통산 8차례 우승,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 대회 4강에 올랐을 때는 한 번도 어긋없이 우승까지

차지했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준 조코비치는 2세트를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3세트 게임 스코어 1-4로 끌려갔다.

조코비치는 1-3으로 뒤진 상대 서브 게임에서 듀스 끝에 게임을 내줬는데 이 게임 도중에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라켓을 코트 위에 마구 내리치며 분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이 게임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후 경기 흐름을 바꿔 연달아 5게임을 따내 세트 스코어 2-1로 역전했다.

마지막 4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 6-6까지 맞서다가 상대의 넷트 앞 백핸드 발리가 길어 아웃되며 매치 포인트를 잡았고, 이어서는 자신의 23번째 서브 에이스로 3시간 30분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은 남자 단식 4강의 두 자리는 17일에 열리는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 다닐 메드베데프(4위)-안드레이 루블로프(8위·러시아) 경기 승자에게 돌아간다. /연합뉴스



카라체프

여자부는 무호바 돌풍...생애 첫 메이저 4강

8강전에서 세계 1위 바티에 역전승 한국계 페굴라 4강 진출 실패

카롤리나 무호바(27위·체코)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다.

무호바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8000만 호주달러·약 686억원) 10일째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애슐리 바티(호주)에 2-1(1-6 6-3 6-2) 역전승을 거뒀다.

무호바는 제니퍼 브레이디(24위·미국)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2019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 우승자 무호바는 2019년 워블던 8강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었으나 이날 승리로 4강 고지를 처음 밟았다.

1세트를 1-6으로 내준 무호바는 2세트 게임 스코어 4-3에서 바티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경기 분위기를 뒤바꿨다.

2019년 프랑스오픈 우승자 바티는 1978년 크리스 오닐 이후 43년 만에 호주오픈 여자 단식을 제패할 호주 선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5세인 바티는 호주오픈에서 2019년 8강, 지난해 4강까지 진출했고 올해 다시 8강에서 접을 썼다.

1세트에서 실책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며 깔끔한 경기를 펼친 바티는 2세트에서만 상대보다 10개 많은 실책 19개를 쏟아내며 무너졌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브레이디가 제시카 페굴라(61위·미국)에게 역시 2-1(4-6 6-2 6-1) 역전승, 4강행 막차를 탔다.

브레이디는 지난해 US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다.

197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킴 페굴라의 딸인 페굴라는 3세트에서 상대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으나 이후 연달아 6게임을 내줬다.

이번 대회 여자 단식 4강은 무호바-브레이디, 오사카 나옴이(3위·일본)-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의 대결로 압축됐다.

무호바와 브레이디는 2019년 한 차례 만나 무호바가 승리했고, 오사카와 윌리엄스 상대 전적은 오사카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세계 랭킹이나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으로 볼 때 오사카와 윌리엄스의 4강이 실질적인 결승전으로 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자 단식 준결승은 18일, 결승은 20일에 각각 진행된다. /연합뉴스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8강전에서 카롤리나 무호바가 애슐리 바티를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61위·미국)에게 역시 2-1(4-6 6-2 6-1) 역전승, 4강행 막차를 탔다.

브레이디는 지난해 US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다.

197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킴 페굴라의 딸인 페굴라는 3세트에서 상대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으나 이후 연달아 6게임을 내줬다.

이번 대회 여자 단식 4강은 무호바-브레이디, 오사카 나옴이(3위·일본)-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의 대결로 압축됐다.

무호바와 브레이디는 2019년 한 차례 만나 무호바가 승리했고, 오사카와 윌리엄스 상대 전적은 오사카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세계 랭킹이나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으로 볼 때 오사카와 윌리엄스의 4강이 실질적인 결승전으로 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자 단식 준결승은 18일, 결승은 20일에 각각 진행된다. /연합뉴스

호남대 펜싱 선수인 'KUSF 어워즈' 우수상

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 선정

호남대학교 펜싱부 선수인(스포츠레저학과 3년·사건)이 최근 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이하 KUSF)가 시상하는 '2020 KUSF 어워즈'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USF 어워즈'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두고 학업에도 충실한 학생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이런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지도자도 같은 상을 받는다.

전수인은 '2019 노푼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펜싱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로 선발돼 개인·단체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19 아시아청소년 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금



메달을 차지한 여자 사브르의 간판이다. 지금까지 전공관련 자격증 8개를 취득할 정도로 학업에 열정을 쏟았다. 전수인은 지난 2월 광주시체육회 체육인재장 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홍식 동신대 교수·양부남 전 광주지검장 대한빙상연맹 부회장 선임

김홍식 동신대 교수와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이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부회장단을 비롯해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고기경 전 감독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홍식 신임 부회장은 빙상연맹 2기 관리위원장을 맡아 연맹 정상화에 기여했다. 양 전 광주지검장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이경 이사는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과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오

른 간판스타였다.

빙상연맹은 전이경 이사 외에도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고기경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 위원, 김은국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의료 감독관, 김도균 경희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 인사를 이사로 발탁했다.

연맹은 지난해 말 순천 출신인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을 제33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날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코 수술하고도 대회 출전 리디아 고 "우리집에서 열리니까"

LPGA 계인브리지 26일 개막 개최 장소 레이크 노나에 거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5승을 기록 중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4)는 지난달 한국에서 코 수술을 받았다.

리디아 고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증상을 보여 비중격만곡증 교정 수술을 받았다.

완전히 회복하는 데 2~3달이 걸리는 수술이어서 그는 한동안 대회에 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디아 고는 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계인브리지 LPGA에 출전하기로 했다.

레이크 노나는 리디아 고의 '집'이기 때문이다. 1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리디아 고는 계인브리지 LPGA 대회 기간에 클럽하우스까지 차를 타고 갈지, 카트를 타고 갈지, 걸어서 갈지 못 정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웃었다.

계인브리지 LPGA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보카리톤에서 열렸다. 그런데 지난해 중순, 올해 대회는 레이크 노나에서 열린다는 발표가 나왔다.

리디아 고는 3년 전부터 레이크 노나의 회원이었고, 1년 넘게 이 골프장 안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손 폴리 코치의 지도로 리디아 고와 함께 훈련한 아너 판 담(네덜란드)도 레이크 노나에 산다. 판 담은 집에서 클럽하우스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해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디아 고와 함께 자주 레이크 노나에서 연습하는 린디 던컨(미국)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리디아 고는 "집에 '힘내 린디'라는 응원 문구를 붙여 놓을 수 있다"고 농담했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와 쟁야니(대만)도 한때 레이크 노나에 살다가 이사를 했다.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이 코스에서 살던 집을 쟁야니에게 팔고, 패어웨이 건너편 16번홀에 있는 전 데이비드 레드베터 코치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소렌스탐은 계인브리지 LPGA를 통해 2008년 은퇴 후 13년 만에 LPGA 투에 복귀한다. 쟁야니도 이번 대회를 통해 1년 10개월 만에 LPGA 투어에 돌아온다. 소렌스탐과 함께 경기할 적이 없는 리디아 고는 경기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소렌스탐의 조를 따라다니고 싶다면 "팬들이 오지 못해 아쉽다. 소렌스탐이 엄청난 관심을 받을 텐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미션 파서블, 더블패티
3관	소울, 빛과 철, 간이역
4관	소울
5관	새해전야
6관	미션 파서블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커를	시간의 끝에서 널 기다려 에니스트 씨프, 인투 더 미러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8관 씨네커를	아이, 몬스터 헌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